

성남시 여성의 생활세계를 통해서 본 지역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

이 윤 호**

The Differential Becoming and Transformation of a Region through the Life-world of Women* - A Case Study of Seongnam City -

Yoon-Ho Lee**

요약 :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두 번의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이원적 도시구조를 지니게 된 성남시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를 행위주체자로서 여성을 선택하여 그들의 생활세계 - 생활사,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의 관계, 일상과 생활공간 - 를 통하여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남시는 차별성을 지닌 두 지역사회를 생성하게 되었으며, 각 장소의 행위주체자(여성)의 생활세계에 있어서도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어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신시가지에 “가까이 하려는” 경향을, 신시가지 주부들은 “구별짓기”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때 기존시가지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주로 부업활동에, 오후에는 주변 이웃과의 교제활동을 주로 함으로써 자신의 거주지를 생산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반면 신시가지 주부들은 오전에는 사적인 생활 즉 여가활동에, 오후에는 자녀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거주지를 소비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형성해 가고 있었다.

주요어 : 생활세계, 지역정체성, 일상, 가까이하기, 구별짓기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the differential becoming and transformation of Seongnam City that have two regional structures through two new-town developments during 30 years. The method is based on “the bottom up approach” looking into the life-world of agents(women); their biographies, socio-economic features, place-identities, the relationship of two communities, daily life of unemployed housewives. As a result, Seongnam City has a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for its local residents or agents as well. Above all, 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in the biography, socio-economic features, place-identity, and the daily life of women. That is, the old town housewives have tendency of coming in contact with new community(nearness), the new town housewives have tendency of keeping away from old community(distinction). And their daily life resulted in the old town as a place for a production locale, where part-time works of housewives take place while the new town as a place of a consumption locale, where shopping and leisure times activities of housewives take place.

Key Words : life-world, place-identity, daily life, nearness, distinction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60년대 이후 강력한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이루어진 지역정책은 국가주도의 개발 우선 정책과 문제해결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지역의 불균등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국가전체 규모의 거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 위주의 경제발전정책은 서울·주변부의 지역확장과 수도권외의 인구성장으로 대도시권 광역체제를 이루게 되었고, 대도시 서울 주변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지역들이 생성되었는데, 그 중의 한 곳이 성남시이다.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국가의 지역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구조의 생성과 변화를 가져오고 더불어 지역주민의 사회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성남시는 우리 나라 현대사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강사(Instructor, Ewha Womans University)

에 있어서 산업화·도시화 과정의 시·공간적인 역동성을 압축하여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하겠다.

약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실시된 두 번의 신도시개발을 경험하면서 성남시는 차별화된 도시구조를 창출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재배치된 행위주체자들의 공간적 실천 역시 차별성을 지니게 되어,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 독특한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재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생성·변화함으로써 형성된 고유하고도 독특한 지역성(locality)을 구명하는 것은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지리학에서는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남시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를 지역의 행위주체자들의 생활세계를 통하여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남시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80년대 이후 논의되고 있는 신지역지리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과 그것에 영향을 미친 현대사회이론을 적용하였다. 과거의 개성기술적이고 구체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지역지리나 실증주의에 기초하여 보편적 일반화만을 추구하는 공간분석론과는 달리 신지역지리의 지역인식의 기본 골격은 전체의 인식 속에서 부분의 인식이 전개되며, 부분들의 인식을 전체로 하여 전체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는 '생성적 관계론'으로, 모든 장소를 정태적인 공간이 아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process)으로서, '형성되는 것(becoming)'으로 본다. 즉 빠르게 생성·변화되어 가는 지역의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신지역지리연구의 지역인식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과의 만남을 통해서 공간¹¹⁾은 단순한 용기(container)가 아니라 항상 사회적으로 구축되며(constructed), 동시에 사회는 항상 공간적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즉 특정한 시점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국가의 지역정책하에 생성된 차별적인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과 그 장소를 만들어가고 있는 행위주체자인 주민들의 사회공간을 파악하는데 적실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주체자 중에서도 특히 주부에 초점을 두어, "아래로부터의 접근"¹²⁾을 시도하였다. 행위주체자로 주부를 택한 이유는 그동안 지리학에서는 대체로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성남시는 대도시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적 특수성¹³⁾으로 인하여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남자(가구주)들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따라서 주부들은 자신의 주거지에 남게 되어 그들의 시·공간을 통한 생활세계는 지역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지에서의 주부들의 일상생활과 지역정체성, 장소감은 그들의 주거장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신도시 개발(1968년)에 의해서 생성된 기존시가지와 2차 신도시 개발(1989년)에 의해서 생성된 신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세계 즉 이주경로를 비롯한 생활사 및 지역사회의 형성과정과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의 관계, 일상생활을 비교·분석하여 이원적 도시구조로 재구조화되며, 생성·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신지역지리연구의 여러 접근방법들과 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례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행위주체자들의 공간적 실천을 통하여 지역의 차별적인 생성·변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의 지역정책의 하나인 신도시 개발이 실시된 지 각각 30년,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책의 결과를 다시금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지역개발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지역 개관

서울 도심에서 동남방 26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시는(그림 1) 도시개발 이전에는 산간벽지였으나, 현재는 남한산성 남서쪽으로 소하천의 좁은 계곡을 따라서 기존시가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남단 녹지였던 탄천 양안의 넓은 충적지에는 신시가지가 개발되었다. 현재 성남시의 행정구역은 3개區와 44개洞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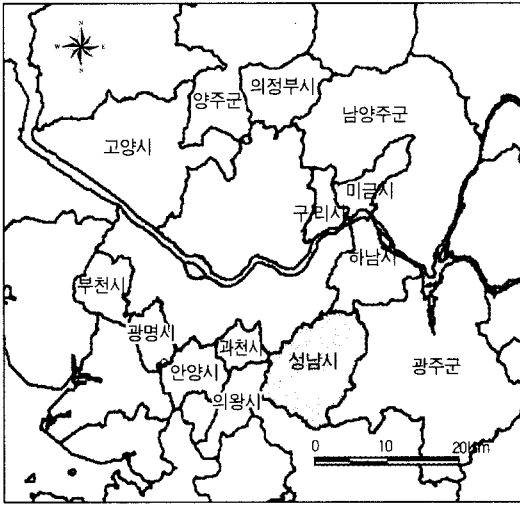


그림 1. 성남시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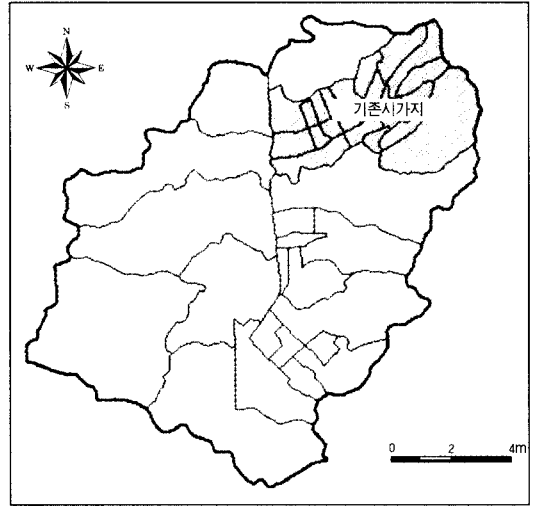


그림 2. 기존시가지 형성(1973-1989)

정구와 중원구의 일부⁶⁾는 1968년 1차 신도시 개발의 하나인 광주대단지개발로 형성된 기존시가지에 해당하며(그림 2), 분당구의 일부⁵⁾는 1989년 2차 신도시개발로 형성된 신시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

이렇게 2차에 걸친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이원화된 공간구조를 지니게 된 성남시는 각각의 분리된 지역에 서로 다른 목적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이주하여 독립된 장소감을 지닌 지역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즉 기존시가지에는 1968년 이래 선입주, 후개발의 신도시개발정책에 따른 철거민의 입주가 이루어졌고, 1973년 시 승격 이후에는 영세농민층의 이촌향도 현상과 80년대에는 서울에서의 교외화 현상과 타 중소도시에서 온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분당의 새로운 시가지에는 1989년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한 신도시개발로 서울의 중산층 이상의 대규모의 인구가 1991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1999년 현재까지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역도시화 현상⁶⁾이 나타나 신시가지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약 60%, 성남시 전체 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게 되었다.⁷⁾

한편 경기도내에서 성남시의 인구구성과 지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⁸⁾ 인구구성비는 가장 높으나 총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구성비가 낮고,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⁹⁾ 성남시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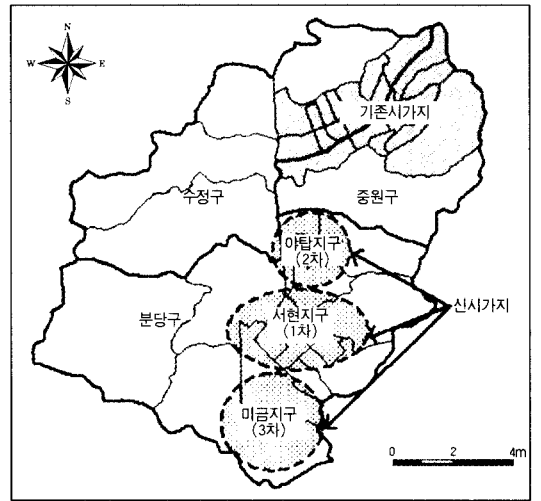


그림 3. 신시가지 형성(1990-현재)

인당 생산수준 역시 경기도 평균수준인 9,473(천원) 보다도 훨씬 밑도는 5,311(천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개발목적이 주거를 위한 주택도시로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울 또는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침상도시(bed town)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기도, 1999).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남시라고 하는 지역의 차별적인

생성과 변화를 구명하기 위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주체자를 주부로 보고 그들의 생활세계 즉 생활사, 그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정체성의 형성 및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로 형성된 지역사회간의 관계, 일상과 생활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생활사의 형성 가운데 이주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주'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데 착안하여 이들이 태어난 장소와 더불어 지금까지 이동한 장소와 활동내용을 개방형의 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주과정을 재구성하고 및 대표적 사례를 모식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의 구체적 삶의 과정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였다. 둘째, 일생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서 이주해온 주부들의 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정도, 소득, 직업, 주택관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사회·문화·경제적 자본의 양을 비교·분석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의 공간적 차별화를 밝혔다. 셋째, 지역에 기초하고 있는 주부들의 장소감, 만족 및 참여도, 이주의사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의 형성을 살펴본 후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지역사회간의 접근성과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폐쇄형의 문항들을 제시하였고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서로 다른 배경으로 형성되어 차별화된 건조환경 속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의 차별적 특성을 지닌 주부들의 사회공간 즉 공간적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차별성을 지니는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부들의 일상과 생활공간을 시간지리의 개념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공간적 실천의 차별성을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첫째, 주부들의 일상생활과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루의 일과¹³⁾와 발생장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각 시간대에 표시한 활동을 중심으로 cell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전업주부들의 시간대별 주요 활동을 모식도(dynamic map)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인 활동들 즉 여가활동, 구매 및 쇼핑활동, 자녀교육활동, 부업활동을 중심으로 시간예산 그래프(time-budget graph)를 작성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는 1999년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¹⁴⁾ 약 35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지역을 세대수 비례¹⁵⁾에 의해 성남에 1,500부, 분당에 1,000부를 배포하였다. 기존시가지는 수정·중원구의 시가지화된 지역에, 신시가지는 분당구의 시가지화된 지역에 한정하였으며, 각각 초·중·고에 배부하였다.¹⁶⁾ 회수된 설문지¹⁴⁾ 중 부적합한 것과 답변율이 80% 이하인 것을 제외하면 기존시가지는 1,202부, 신시가지는 731부로 배포된 전체 설문지의 77.3%인 1933부가 실제분석에 이용되었다.¹⁵⁾ 설문지 분석방법은 폐쇄형의 문항 통계처리의 경우 SAS/PC+을 통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방형의 통계처리는 실제내용을 EXCEL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생활세계 및 일상연구에 관한 논의

70년대에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는 '공간은 사회적 구축물'이라는 전제하에 공간은 사회관계와 물질적·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의 공간에 대한 무시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논리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무지'라고 인식되었으며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은 구분되어 다루어질 수 없으며 양측에 교차하는 미묘한 부분을 포착하여 사회과학의 치명적인 인식론적 공백을 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이상일, 1995). 즉 공간은 항상 사회적으로 구축되지만 동시에 항상 공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행위주체의 실천이 있으며 이러한 공리가 바로 변증법적인 개념이다(Soja, 1981). 따라서 전통적인 지역형성의 관계인 인간-자연관계에서 벗어나 인간-사회-자연의 삼각관계(Gilbert, 1988)가 됨으로써 공간은 단순한 용기(container)가 아니라 존재를

존재에게 하는 본질적 차원으로서는 공간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이 되고, 사회적인 것은 공간적인 것이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특히 신지역지리 연구는 이러한 공간-사회와의 만남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의 형성에 관한 논의는 행위주체자들이 시-공간적인 배경 하에서 어떻게 생활을 전개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가면서 진행되어 왔다. 즉 개개인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특정한 생활세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생활세계와 집단적인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¹⁶⁾ 모두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상호간의 주관성(intersubjectivity)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매일매일의 실천을 통한 생생한 경험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Simonsen(1993)의 연구는 시-공의 맥락 속에서 개개인과 사회적 실천의 일상화라고 하는 상호간의 주관성에 기반을 두었다. 그는 사회생활의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 각각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시간적 측면으로는 1) 장기간에 걸친 사회생활로서 제도들의 역사적인 발달과 관련된 것들, 2) 일생에 따른 사회생활로서 개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또한 특정세대의 사회적 상황의 특성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3) 하루에 걸쳐서 개개인들의 일상적 행동은 제도적인 틀의 구조와 그들의 생애주기의 리듬과 상호작용 하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공간적 측면으로는 1) 제도적인 공간적 실천으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소'로서 그 의미를 도시공간에 착색된 인간의 의식과 사회적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3) 개개인의 공간적 실천으로 개개인과 집단간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내용구성성을 이루어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공간의 개념을 발전시켜 시간지리학으로 전개한 사람은 1960년대 초 스웨덴의 Lund 학파를 주도하던 Hägerstrand이다(Hägerstrand, 1970). 즉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환경 등은 시간과 공간의 가치와 인식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선택과 공간선택은 각각 시간가치관과 공간인식의 바탕 하에 이루어지고, 개인은 선택된 시·공간활동의 주제로서 도시활동행태 유형을 형성한다. 이는 다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가치 및 인식체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순환체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활동의 공간행태적 연구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간지리에서 개인의 활동은 시·공간 그래프에서 하나의 행적(path)으로 나타나며, 개개인의 행적은 모두 상이하여 똑같은 형태는 있을 수 없으나 자연의 섭리에 따른 변화와 인간의 본질적인 행태 유형이나, 동질적인 환경배경 등으로 인하여 유사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시간지리학은 시간예산(time-budget)¹⁷⁾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제활동들의 공간적 위치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특별한 시설과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 지역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방식들이 상이한 활동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D. Parkes and N. Thrift, 1980; 이창운, 1985). 즉 시간과 공간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개인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도시 및 지역계획적 결정에 견고한 틀을 제공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 및 일상성의 연구는 최근에 사회학, 인류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진양교(1998)는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이라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과는 일상생활을 감싸고 있는 외적 구조로 인식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하였다. 그는 하찮아 보이는 일상의 기록들 속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러한 일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간'에 대한 내용이다. 공간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상호 역동적으로 엮고 있는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진양교, 1998).

한편 르페브르 역시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공간과 장

소를 변증법적으로 해석하면서 공간의 생산 3요소를 통해 하나의 공간이 재생산된다고 하였다. 즉 첫째,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인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루는 공간으로 학문적 이론들이나 담론들을 의미하며, 둘째, 재현된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은 공간의 표현에 의해 실제 건축되고 만들어져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공간들로 살아있는 경험된 공간을 말한다. 셋째,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으로 구현된 공간들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써 구체적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다(Lefebvre, 1991; Merrifield, 1993; Simonsen, 1991; 진양교, 1998)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일상성을 만들어 내는 가치체계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늘어지면서 일상성은 권력이나 이데올로기가 전달되고 수용되는 장소라고 강조하며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동안 일상생활이 비철학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상에 비해서 자못 저급한 현실세계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일상'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일상'이 정교하게 이론화된 체계를 벗어나는 신비하고 경탄할 만한 것, 또는 자연과 예술 그 어떤 것 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Lefebvre, 1990).

이러한 생활세계와 일상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지리학에서 신지역지리연구의 대두와 더불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본 연구 역시 행위주체자들의 구체적인 시·공간적 실천을 통하여 성남시가 생성·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입증해보고자 하였다.

3. 지역사회 형성과 지역정체성

1)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사회 형성

(1) 주부들의 생활사 분석

성남시는 약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별화된 공간이 생성되었고,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 및 생활세계 역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각각의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의 독립된 이미지를 갖는 지역사회-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생활사 역시 다르게 형성되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도시인 서울 주변에 위치한 성남시의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출근하는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들이 생산현장으로 출근한 후 거주지에 남아 생활하는 주부들의 생활공간과 생활세계는 지역성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다.

단시간에 형성된 성남시의 형성과정으로 보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의 경험을 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주부들의 '이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사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한 개인의 생활사란 장소의 생성과 더불어 형성되며 동시에 장소는 개인의 전기형성과 더불어 생성되며(Pred, 1985), 따라서 이주자들의 생활사와 성남시의 생성은 서로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 하였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¹⁹⁾(Paasi, 1991)이 어떠한 '이주경로'를 통해서 각각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살펴 본다는 것은 성남시와 더불어 수도권,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시·공간적 이동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복잡한 생활사의 궤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주경로를 중심지 계층의 개념을 이용하여 재분석한 결과 기존시가지 주부들의 이주경로(그림 4)와 신시가지 주부들의 이주경로(그림 5)를 보면 그 과정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즉 기존시가지의 주부의 경우에는 주로 군부 이하의 시골태생으로서 결혼 전에 이미 성남시에 이주했거나 혹은 70년대 말 - 80년대 초 교외화로 서울에서 성남시로 이주한 이후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가구들로서 거주년수가 평균 약 10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시가지 주부의 경우, 일부는 시골태생으로 교육이나 부모의 취업으로 일찍이 서울에 이주했거나 또는 서울 태생인 사람들이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신도시개발 당시 분양을 받아 이주한 가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공간정책에 의해 차별화된 공간구조를 지닌 성남시에 이주해온 주부들의 "이주경로"를 따라 생활사의 궤적을 사례로 모식도를 그려보면 그림 6,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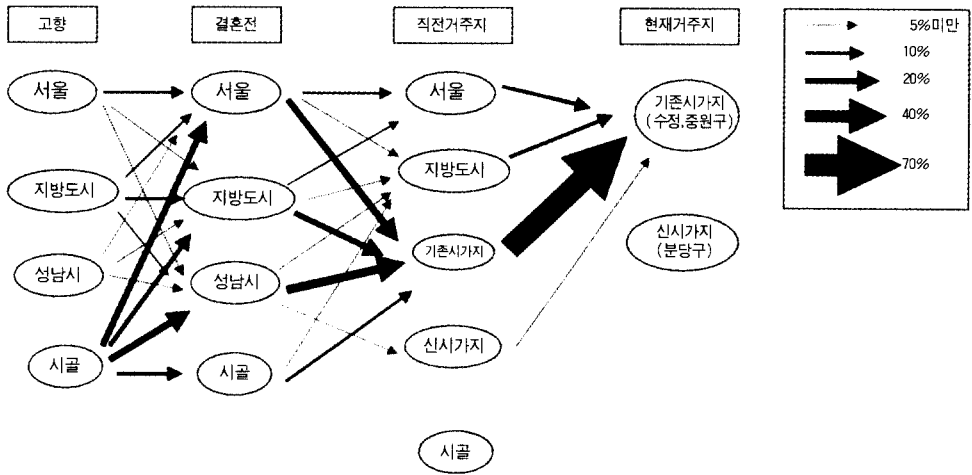


그림 4. 기존시가지 주부의 이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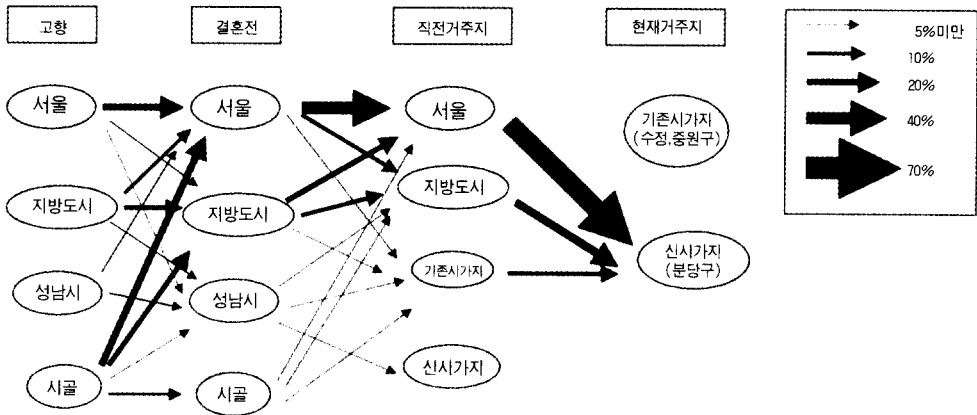


그림 5. 신시가지 주부의 이주경로

(2) 사회·경제 계층의 공간적 차별화

서로 다른 생활사 즉 이주경로를 지닌 가구들로 형성된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사회는 그 계층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지니며, 이들이 지닌 자본의 양 역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은 개개인이 상이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자본의 총량과 구성방식에 따라서 사회공간이라는 위치메트릭스의 한 지점을 각 개인 혹은 집단이 점유하게 된다(김현미, 1997). 이처럼 서로 자본의 총량이 다른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가지게 되며 사회적 층화는 경제적인 것 이외의 것들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 즉 경제자본이 상

징자본으로 전환되어 표면상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문화소비양식이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그 가능성이 높다.

본 절에서는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학생 자녀를 둔 주부들의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교육·직업·소득·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 계층이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현상을 밝히고자 한다(표 1, 2, 3, 4).

이상과 같이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문화적·경제적 자본을 살펴본 결과 신도시 개발 당시 형성된 공간의 차별화와 더불어 상이한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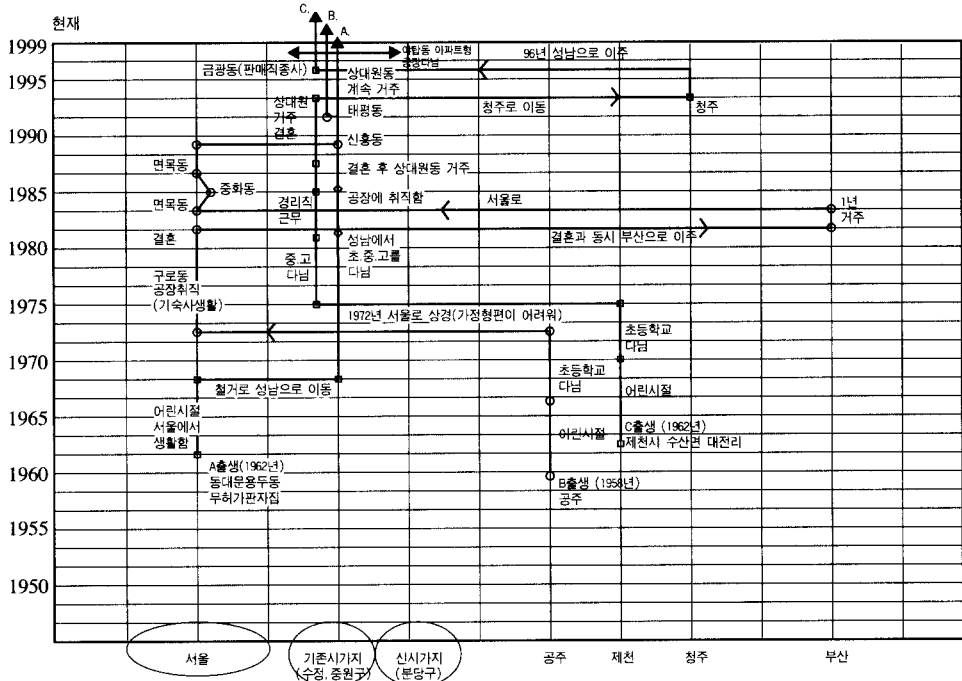


그림 6. 기존시가지 주부의 생활사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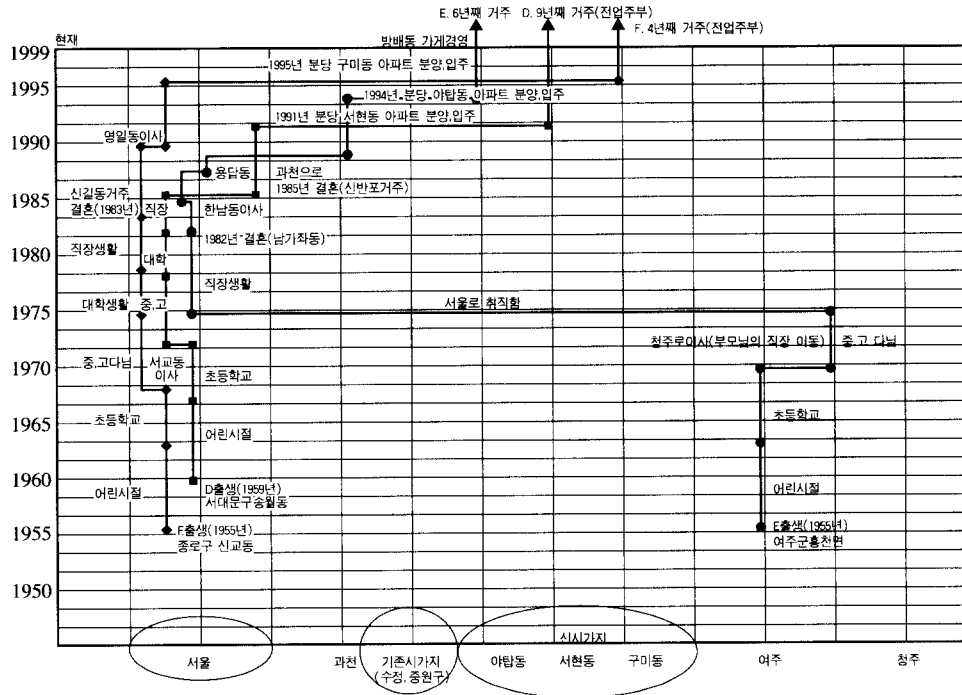


그림 7. 신시가지 주부의 생활사 모식도

표 1. 지역별 주부의 학력분포 비교

(단위: 명, %)

지역 학력	기존시가지		신시가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졸이하	37	3.1	1	0.1
중 졸	210	17.7	26	3.6
고 졸	771	65.1	286	39.3
대 졸	164	13.8	374	51.4
대원이상	3	0.3	40	5.5
계	1,185	100.0	727	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표 2. 지역별 배우자의 직업분포 비교

(단위: 명, %)

직업	지역	기존시가지	신시가지
		빈도	비율
공식	자본가계급 (5인이상 고용업체의 관리자)	8.0(90)	13.0(91)
	신중간계급1(전문직)	3.5(40)	12.6(88)
	신중간계급2(사무직)	16.7(188)	35.1(245)
비공식	노동자계급 (서비스·상업*, 생산직, 판매직 포함)	37.8(427)	14.7(103)
	구중간계급 (5인이하 고용의 자영업체)	15.0(169)	15.6(109)
	도시하류계급 (노점, 행사, 일용직, 가내부업 등)	8.2(92)	0.7(5)
	무 직	3.1(35)	1.9(13)
기 타	7.7(87)	6.4(45)	
계		100.0(1,128)	100.0(699)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주: *서비스·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기존시가지는 25.7%, 신시가지는 10.9%임.

의 사람들이 각각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시가지의 경우 주로 저학력을 가진 가구로서, 상업·서비스업을 비롯하여 노동자계급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신시가지의 경우 주로 고학력을 지닌 전문직·사무직·자영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약 30년,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비슷한 부류(어울리는)의 사람들이 계속 이주해와 지역의 거주차별화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서로 다른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들(주부들)이 스스로 느끼는 중산층 귀속의식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문을 한 결과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61.3%인데 반하여 신시가지 주부들은 긍정적 반응이 56.9%로 자신의 중산층 귀속의식도 앞에서 제시한 자료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지역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사회의 관계

(1) 지역정체성의 형성

이와 같이 하나의 행정구역내의 분리된 공간에서 서로 상이한 자본을 지닌 지역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형성된 지역

표 3. 지역별 가구의 소득분포 비교

(단위: 명, %)

소득	지역	기존시가지		신시가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0만원 미만		34	2.9	5	0.7
50~100만원		172	14.8	19	2.7
100~150만원		318	27.4	53	7.6
소 계		524	45.1	77	11.0
150~200만원		37	29.0	158	22.5
200~300만원		206	17.7	223	31.8
소 계		543	46.7	381	54.3
300~400만원		54	4.7	136	19.4
400~500만원		27	2.3	56	8.0
500만원 이상		13	1.1	51	7.3
소 계		94	8.1	243	34.7
계		1,161	100.0	701	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표 4. 지구별 주택의 유형

(단위: %, 명)

주택유형	지역	기존시가지		신시가지		
		수정구	중원구	야탑지구	서현지구	미금지구
단독주택		52.6(269)	39.5(263)	8.4 (21)	3.6 (10)	3.2 (6)
아파트		18.6 (95)	22.1(147)	85.2(212)	92.5(256)	93.7(177)
연립주택		6.3 (32)	5.0 (33)	0.8 (2)	0.7 (2)	0.5 (1)
다세대주택(빌라포함)		19.0 (97)	31.4(209)	4.4 (11)	2.5 (7)	2.1 (4)
기타		3.5 (18)	2.0 (13)	1.2 (3)	0.7 (2)	0.5 (1)
계		100.0(511)	100.0(665)	100.0(249)	100.0(277)	100.0(189)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5. 중산층 귀속의식의 정도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나의 생활수준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시가지	2.7	17.9	27.2	39.4	21.9	100.0
		(32)	(209)	(317)	(458)	(254)	(1,166)
	신시가지	18.8	38.1	30.2	9.0	3.8	100.0
		(133)	(270)	(214)	(214)	(27)	(708)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정체성 역시 다르리라 판단된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자아 개념의 일부로서 처음 Mead(1934)에 의해 기술된 것으로, 에릭슨(Erickson, 1958, 1968)이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여러 학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하재명, 1989) 정체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며, 정체성이란 아이디어는自我的 관점으로부터 나온다.自我는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알기 위한 학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생긴다. 이 자아정체성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측면인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심리적 측면인 사회적 정체성으로 발달해 간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성의 통합된 개념으로 직업, 지역, 민족, 국가정체성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과 관계가 있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 내지 일체감을 의미하며 변화와 위기를 거치면서 형성되고 변화되며 발달해 간다(김향원, 1990).

이러한 사회심리적 관점에서의 지역정체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일정한 경계를 지

닌 로케일로서의 장소는 아이덴티티가 구성되고, 유지되며 변형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즉 사람, 사물,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장소는 일상생활의 사회세계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아이덴티티가 정의되고 자리매김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다(Cuba and Hummon, 1993).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부들에게 장소감의 형성과정, 만족과 참여도, 이주의사와 관련된 설문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파악하였다.¹⁹⁾

먼저 장소감의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며 애착심이 낮은 반면에 신시가지 주부들은 거주년한이 평균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꽤 크며 애착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남 시민으로서의 긍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신시가지 주민들 상당수가(61.1%) 서울에서 이주해 왔으며, 처음 신시가지 개발 당시 독립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성남시에 소속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표 6, 7, 8).

표 6. 성남 주민으로서의 긍지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나는 성남(분당)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기존시가지	6.3 (73)	21.9 (255)	36.5 (425)	26.7 (311)	8.6 (100)	100.0 (1,164)
	신시가지	30.3 (215)	42.3 (300)	20.1 (143)	5.6 (40)	1.7 (12)	100.0 (71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7. 자녀들도 성남(분당)에 살기를 바람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도 가능하다면 성남(분당)에 살기를 바란다.	기존시가지	4.1 (48)	11.7 (136)	20.3 (236)	40.1 (467)	23.9 (278)	100.0 (1,165)
	신시가지	19.5 (138)	31.4 (222)	31.8 (225)	15.0 (106)	2.4 (17)	100.0 (708)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8. 성남 시민으로서의 긍지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나는 성남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시가지	9.0 (138)	20.8 (146)	37.7 (265)	24.2 (170)	8.3 (58)	100.0 (702)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주: 이 문항은 신시가지에만 질문하였음.

한편 이주의사와 만족 및 참여도를 통해서 지역정체성을 살펴보면(표 9, 10, 11),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기회가 된다면 이 곳을 떠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대해 무관심하고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은 반면에 신시가지 주부들은 대부분이 거주 장소에 만족하고 있으며 정착의 의지를 밝히고 있었다. 또한 지역문제와 지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관심이 높으며²⁰⁾ 특히 신시가지(분당)에 대해 이들이 느끼는 애적도가 상당히 높았다.

(2) 지역사회의 관계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표 12, 13, 14, 15) 상호지역간의 접근성에 있어서 두 지역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기존시가지 주부들이 신시가지로의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상호간 지역감정은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신시가지가 건설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신시가지로 인해서 성남이 발전할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약간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된다.²¹⁾

반면 신시가지 주부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장소의 명칭을 통해서 기존시가지에 대한 이미지와 소속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항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질문한 결과 신시가지 주부들은 공식적으로 성남시내의 분당구로 소속되어 있음에도 성남이라는 명칭보다는 의도적으로 분당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²²⁾

표 9. 성남(분당)을 떠나기 바람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성남을 떠날 것이다. (나는 항상 서울로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다.)	기존시가지	242 (283)	33.9 (396)	23.5 (275)	12.8 (149)	5.6 (65)	100.0 (1,168)
	신시가지	1.8 (13)	8.1 (57)	15.1 (107)	42.8 (303)	32.2 (228)	100.0 (708)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10. 지역사회에의 참여도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나는 반사회나 자치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기존시가지	8.3 (97)	19.4 (226)	8.4 (98)	42.1 (491)	21.8 (254)	100.0 (1,166)
	신시가지	22.7 (160)	38.2 (270)	7.8 (55)	25.8 (182)	5.5 (39)	100.0 (70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11. 성남(분당)이 쾌적한 장소라고 여김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나는 성남(분당)이 쾌적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기존시가지	5.8 (67)	20.4 (237)	21.2 (247)	38.9 (452)	13.8 (160)	100.0 (1,163)
	신시가지	42.5 (301)	51.9 (368)	3.5 (25)	1.7 (12)	0.4 (3)	100.0 (709)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한편 각 지역의 분리에 대한 견해를 보면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신시가지 주부들은 72.8%가 독립시를 희망하고 있어, 이들의 지역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⁵⁾

4. 주부들의 일상과 생활공간의 특성

이처럼 성남시는 2차에 걸친 성격과 배경이 다른 신도시개발의 결과 생성된 공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축된 각각의 건조환경에 바탕을 두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어우러져 끊임없이 재구조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원화된 장소에 차별성을 지니는 주부들의 사회공간은 어떻게 나타나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주부들의 일상과 생활공간을 시간지리적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장소는 공간적 실천의 핵심이 되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형되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역사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실천적인 행위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것을 Giddens(1981)는 구조화이론으로, Hagerstrand(1970)는 시간지리학의 개념으로, Bourdieu(1979)는 아비투스 개념으로, Pred(1985)는 역사적으로 우연적 과정으로

표 12. 성남(분당)으로의 외출 정도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나는 자주 여러가지 목적으로 성남(분당)으로 외출한다.	기존시가지	10.2 (119)	22.5 (261)	6.0 (70)	39.4 (458)	21.9 (254)	100.0 (1,162)
	신시가지	4.5 (32)	9.6 (68)	3.1 (22)	31.7 (224)	51.0 (360)	100.0 (70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13. 신시가지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

(단위: %, 명)

구분	내용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기존시가지	나는 성남시에 신시가지(분당)가 건설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6.3 (189)	44.0 (510)	28.4 (329)	7.6 (88)	3.8 (44)	100.0 (1,160)
	나는 성남시에 신시가지가 건설되어 성남이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2 (224)	35.9 (418)	25.4 (296)	15.6 (182)	15.6 (182)	100.0 (1,164)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14. 기존시가지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거주지를 물을 때 '성남' 보다는 '분당'에 산다고 말한다.	신시가지	61.7 (438)	33.7 (239)	1.0 (7)	2.5 (18)	1.1 (8)	100.0 (71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15.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분리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내용	지역 구분	반응구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나는 분당이 성남시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기존시가지	4.9 (57)	4.6 (53)	23.2 (270)	29.1 (339)	38.2 (445)	100.0 (1,164)
	신시가지	52.1 (368)	20.7 (146)	16.3 (115)	6.7 (47)	4.2 (30)	100.0 (70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로서의 장소를 제시하면서 개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어가고 있다. 개인의 전기가 장소의 생성과 더불어 형성되며 동시에 장소는 개인의 전기 형성과 더불어 생성되듯이 이 일생의 경로는 일일경로와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즉 '생애경로-일일경로' 사이의 변증

법은 장기적 실행과 매일 매일의 실천 사이에 생기는 상호작용과 관련되며, 집단과 계급 그리고 성별차이가 지방수준 및 좀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 재생산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Pred, 1985).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일생경로를 가지고 하나의

행정적 경계 내에서 독립된 이미지를 가지고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주부들의 일상생활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시-공간적 개념을 발전시킨 시간지리학과 시간예산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부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였다.

1) 모식도 사례 분석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전업주부들의 시간대별 주요활동항목²⁹⁾을 기초로 하여 그 대표적 사례를 모식화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모식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시가지의 주부들의 경우, 오전에는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며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매우 적은 반면 오후에는 주변이웃과의 만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변의 이웃들과 부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마실을 가는 것으로 파악되며 구매 및 쇼핑활동도 집 주변에서 짧은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시가지 내에서 경제적·문화적 자본의 양이 많은 주부들이 신시가지의 초입부분에 있는 할인매장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시가지로 가까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이들은 신시가지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서울로 공간선택과 이동이 있었던 것이 신시가지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시가지의 주부들은 신시가지의 건설로 인하여 자신들의 거주장소가 좀 더 발전될 것이라고 여기며 신시가지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희망거주장소로 신시가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시가지 주부들의 경우에는 오전시간을 자신의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 주변에 있는 소비활동시설을 이용하여 문화활동 및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신시가지에 조성된 문화센터나 스포츠시설을 주로 이용하며, 구매 및 쇼핑활동도 각 지구별로 근접한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을 이용함으로써 소수의 장소에 집중(bundle)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시가지 주부들

의 일상과 생활공간은 대부분이 신시가지 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시가지와는 거의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존시가지와는 '구별짓기', '거리두기'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앞 장의 정체성 형성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기존시가지와 분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기존시가지와의 차별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오후시간에는 상당한 수의 주부들이 자녀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와 관련된 교육시설로의 잦은 왕래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녀들의 교육에 열의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시간예산그래프의 분석

(1) 여가활동

여가란 시간과 활동의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에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강정희, 1994). 특히 본 절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활동의 영역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부들의 시간예산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하였다(그림 9).³⁰⁾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가활동 부문을 다시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외식 및 모임활동, 주변이웃과의 교체활동으로 세분하였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문화활동에 있어서 특히 평일에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부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시가지 주부들은 주로 상품화된 여가활동으로 자기개발을 위해 취미활동이나 교양강좌 및 자격공부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오전에 기존시가지 주부들에 비해 약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활동 역시 평일 오전시간에 기존시가지 주부들에 비해 신시가지 주부들이 약 3~4배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외식 및 모임활동 역시 여가활동 중에서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부들의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서 기존시가지 주부들의 평일 외식 참여율은 거의 없으나 신시가지의 경우는 두 번의 첨두시간대를 나타내며 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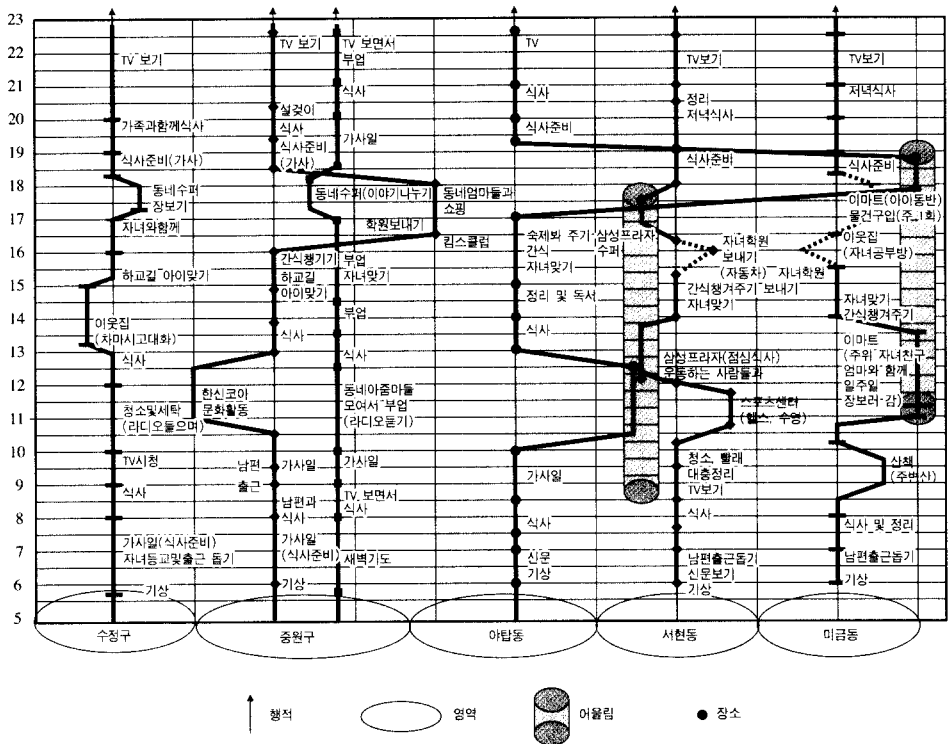


그림 8. 기존시가지 및 신시가지 전업주부의 일상의 사례

도 꽤 높아 상당한 생활패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오전, 오후 시간 모두 전업주부로서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쇼핑, 모임 활동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외식활동을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주로 동반자는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일 것으로 사려된다. 모임활동 역시 문화활동, 외식활동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비슷한 행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주변이웃과의 교제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존시가지 주부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신시가지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단지 주부들과 기존시가지 서민층의 주부들-밀집된 연립주택과 소형빌라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서민들의 단독주택이나 밀집된 소형공동주택들이 있는 환경을 들여다보면 차가 들어오기도 힘든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 주부들이 평상위에서 환담을 하면서 아이들을 골목에서 놀리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환경에서는 아이들이나 남편의 공통점이 없는 한 자연스러운 이웃 관계의 형성은 어려우리라 사려된다.²⁶⁾

(2) 구매 및 쇼핑활동²⁷⁾

전업주부의 구매 및 쇼핑활동의 차이는 주로 평일과 토요일의 오전 시간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부들의 구매나 쇼핑활동은 오후 4~6시 경에 참여율이 높으나 신시가지 주부들의 경우 오전 시간대에 약 10%의 참여율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신시가지에 거주지와 인접하여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의 다수입점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이용이 수월하며, 또한 여가활동과 결부되어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²⁸⁾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핑센터로 발길을 옮기는 주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시가지 주부의 경우는 오전 시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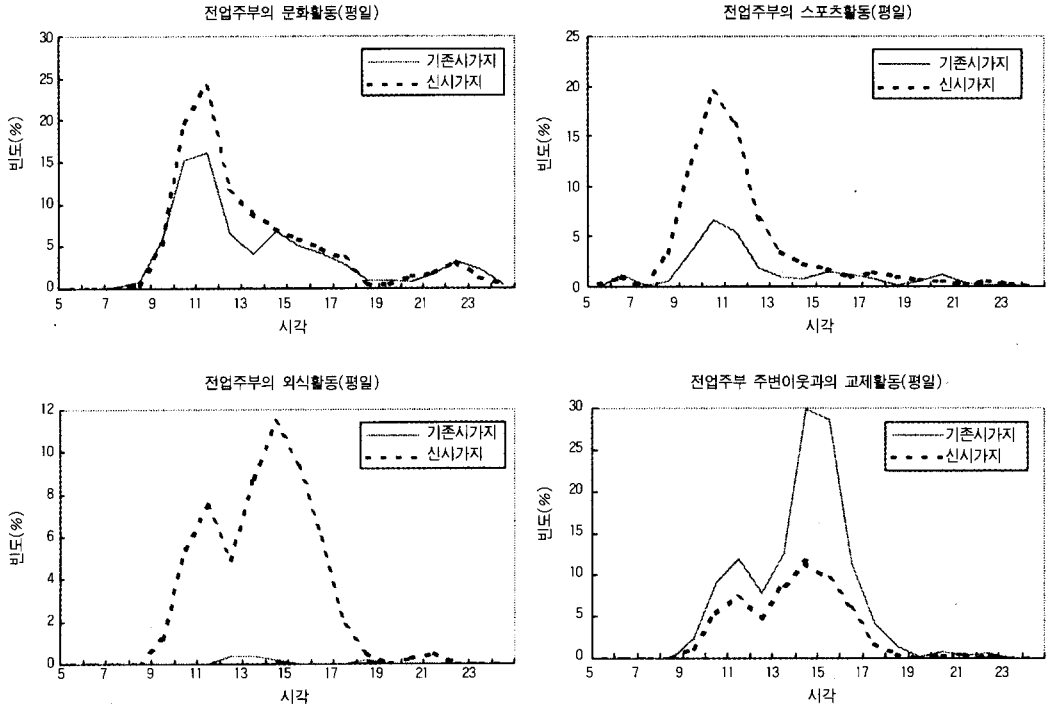


그림 9. 전업주부의 여가활동(평일)

약간의 활동이 있지만 주로 집 주변에서 간단한 물건구입이 일어나다가 3시 경부터 시작되어 4~5시경에 침두시간대를 이룬다(그림 10). 토요일은 평일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신시가지의 경우 오전에는 토요일이 더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며, 기존시가지의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 그 참여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며, 일요일은 두 지역 모두 오전은 평일 보다 감소상태이며, 오후 4~5시경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3) 자녀교육활동

주부에게 있어서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일과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초·중·고학생을 가진 주부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부들의 참여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그림 11).

오전시간의 자녀돌보기는 주로 등교 준비와 관련된 부분이나 오후시간의 자녀돌보기는 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려된다. 특히 평일의 경

우 오후 2~6시까지 신시가지의 경우 자녀돌보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29.0~37.2%이나 기존시가지의 경우는 오후 1~6시까지 12.6~17.4%로, 신시가지주부들이 기존시가지의 2배 이상 참여율이 높아 신시가지 주부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과 관심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로 이 시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 맞기, 간식 챙겨주기, 숙제 돌봐주기, 학원에 데려다주기 등의 참여로 볼 수 있으며 기존시가지가 신시가지 보다 1시간 일찍 시작되는 것은 설문응답자의 가족주기가 신시가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사려된다.

(4) 부업활동

이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업주부이면서 부업을 하는 주부들이 기존시가지(수정·중원구)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1). 부업활동은 비공식적인 부문으로서 소득도 불규칙함에 따라 스스로 직업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시가지가 신시가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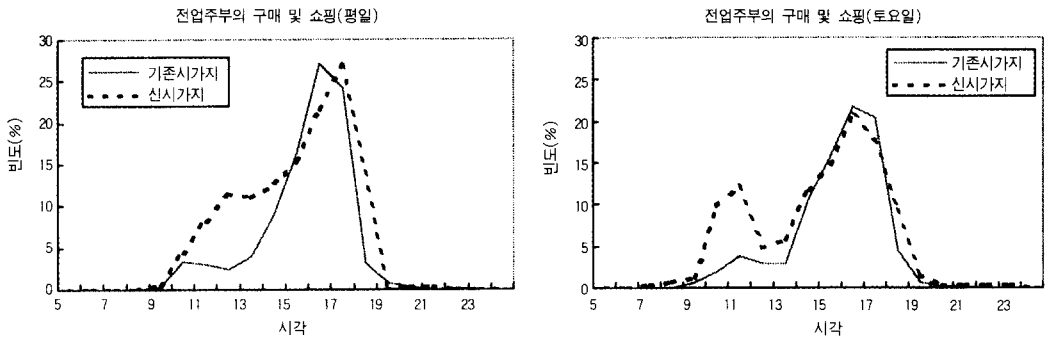


그림 10. 전업주부의 구매 및 쇼핑활동(평일, 토요일)

약 2배 이상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업주부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구일수록 주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 지역 모두 두 번에 걸쳐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는데, 시각으로는 오전 11~12시경, 오후 2~5시경으로 기존시가지는 12.5%, 12.9%인데 반해서, 신시가지는 4.6%, 6.2%으로 기존시가지는 신시가지에 비해서 2~3배 이상의 참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부업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²⁹⁾ 기존시가지의 경우에는 공장에 납품하는 조립이나 양말짜기, 악세사리 만들기 등이었으며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번역활동이나 예능과 관련된 과외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으로 전업주부의 하루의 일과를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부들의 시간사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일의 오전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신시가지 주부들은 여가활동 즉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외식 및 모임활동과 구매 및 쇼핑활동

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그 참여율이 낮으며 오히려 부업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계층의 차이는 그들의 하루 일과를 차이 나게 하며 이는 곧 공간적 실천으로 나타나 건조환경에 반영되어 상품화된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서비스 시설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렇게 재현된 공간은 또 다시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쳐 차별화된 장소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또한 오후시간에 신시가지 주부들은 자녀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이웃과의 교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고소득의 신시가지 주부들은 사적인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며,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해석되며, 저학력·저소득의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사적인 시간에 투자하기가 힘들지만 오히려 이웃과의 교제는 더욱 긴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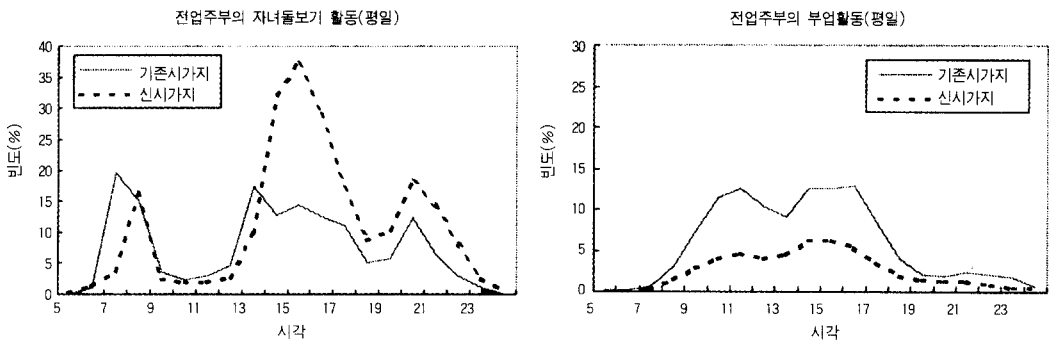


그림 11. 전업주부의 자녀 돌보기 및 부업활동(평일)

5. 결론

지금까지 국가의 지역정책에 의해서 조형되고, 이와 더불어 재배치된 인구들로 형성된 성남시 지역을 행위주체자로서 여성을 선택하여 그들의 공간적 실천 즉 생활사와 정체성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원적 도시구조를 지니며, 차별적으로 생성되어 가는 과정을 구명해 보았다.

즉 1968년 서울의 철거민 이주를 목적으로 한 1차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시가지와 1989년 서울 강남의 중산층 이상을 위한 2차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시가지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기존시가지에는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과 이와 함께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대중교통의 발달과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저소득층의 가구들이 유입되었고, 신시가지에는 20년 후인 1989년에 서울 강남 지역의 중산층 이상의 가구들이 집단적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성남시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입지한 이원화된 각각의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행위주체자들의 사회적 삶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역의 상당부분이 형성되어간다고 볼 때, 행위주체자들의 사회-공간적 실천을 살펴본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서울이라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성남시 자체의 기반산업 보다는 주거지역과 소비도시로 변모해가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가구주들은 서울이나 타도시로 출근을 한 후 거주지에 남게되는 주부들의 사회공간적 실천을 통해 지역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를 구명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주부들의 생활세계를 생활사,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의 관계, 일상과 생활공간을 통해서 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신시가지 주부들은 주로 서울태생으로서 신시가지 개발 당시 분양을 받아 이주한 가구들로서 고학력·고소득층으로 신시가지 '분당'에 대한 정체성 및 거주만족도나 참여도는 매우 긍정적이며 자긍심이 크고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와의 관계는 부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어 '거리두기', '구별짓기'의 생활양식이 나타나며, 그들의 일상생활은 오전시간에 사적인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였고, 오후에는 자녀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있었으며 열심을 갖고 있었다. 이와 맞물려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더욱 주부들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문화활동시설의 입점을 유도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소비문화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주로 군부 이하의 시골태생으로서 결혼전에 이미 성남시에 이주했거나 혹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교외화로 서울에서 성남시로 이주한 이후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가구들로서 저학력·저소득층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성남에 대한 정체성 및 거주만족도나 참여도는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상태였다. 그러나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며 차후 희망거주지로 분당을 생각하고 있으며 신시가지와의 분리를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나, 신시가지에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오전시간에는 부업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사적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우나, 오후에는 오히려 이웃과의 교제가 더욱 긴밀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중에서 경제·문화적 자본의 양이 많은 일부는 신시가지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신시가지의 생성으로 말미암아 과거 서울에 의존하던 활동이 신시가지로 옮겨져 왔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성남시는 지난 30년 동안 두 번의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건조환경과 사회·경제적 계층의 차별성을 지닌 두 개의 장소로 이루어진 이원화된 도시구조를 생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끊임없이 이에 어울리는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기존시가지는 저소득층의 거주 지역의 장소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산현장으로서의 공간을, 신시가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주거단지와 소비도시의 특성을 지닌 장소로, 소비현장으로서의 공간을 형성하여 차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註

- 1) 1960년대 이후 논리실증주의가 지리학에 도입된 이래로 공간에 대한 인식은 주로 위치, 근접성, 거리, 패턴, 형태와 같은 개념이 포함되며 공간

- 조직의 법칙성을 추구하는데 집중해 왔다. 즉 공간이란 객관적인 실체로서 각종 의미를 지닌 장소들의 집합체를 말하며 각종 지리적 현상이 담겨있는 용기, 또는 틀을 의미한다(이희연·최재현, 1998).
- 2) Warf(1998)는 다양한 스케일에 있어서의 지역연구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대규모 스케일 공간에서는 개별행위자보다는 국가나 자본의 흐름, 시장행태, 그리고 자원배분과 같은 구조적 규정력에 토대를 둔 연구가 설명력을 가질 수 있으나, 공간의 스케일이 작을 경우에는, 방법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구조화 이론이 적절하고 성공적인 이론으로서 생생한 경험의 수준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 3) 성남시는 서울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이다.
 - 4) 수정구의 16개동 중 신흥 1, 2, 3동, 태평 1, 2, 3동, 수진 1, 2동, 단대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중원구의 10개동 중 여수동을 제외한 성남동, 중동, 금광 1, 2동, 은행 1, 2동, 상대원 1, 2, 3동이 해당됨.
 - 5) 분당구의 18개동 중 판교동, 금곡동, 운중동을 제외한 분당동, 수내동, 초림동, 내정동, 정자동, 불정동, 구미동, 신기동, 서현동, 서당동, 이매동, 매송동, 야탑동, 중탑동, 하탑동을 포함함.
 - 6) 서울의 인구는 1993년 이래로 6년째 감소하고 있으며, 2001년 부터는 1,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9년 3월 현재 1,032만명으로 추산됨(조선일보, 1999. 3. 22).
 - 7) 성남시 초기의 인구 및 세대수(1973년)는 190,580명/39,080호였으며, 현재(1999년)는 919,732명/300,451호로 증가하였다.
 - 8) 경기도내에서 성남시의 인구구성비와 총생산구성비는 11.0%/6.2%인데 반해 수원시는 9.4%/12.4%이다.
 - 9)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의 제조업 인구구성비는 2.5%, 서비스업은 10.1%이다.
 - 10) 본 설문에서는 하루의 시간에서 밤 12시~오전 5시까지의 생략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조사에서 모두 이 시간을 취침으로 표시하였고, 반복되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응답률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 11) 시간 관련 연구에서는 보통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한 봄과 가을을 택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 12)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세대수는 179,201:121,250으로 6:4의 비율이다.
 - 13) 특히 초·중·고 학생을 둔 주부들을 택한 이유는 한 사회의 기본단위는 하나의 가구이며, 주부의 연령대에 따른 분포비율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0, 40대이며 또한 이들의 가족주기는 거주지에 입지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령의 인구를 지닌 가구로서 주부들의 일생에 있어서 거주지에 기초한 생활세계의 영역이 가장 많고 활동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4) 회수율은 약 80%였다.
 - 15) 표본의 수 1,933부는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99%,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pm 3\%$ 를 만족시키는 수이다(Sheskin, 1985, 35).
 - 16) Williams가 명명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때로는 의식적인 태도와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즉 건조환경, 의상의 기호들, 언어패턴들, 공적인 수행, 물질적 소유들에 각인되어 있는 인지적 요소들과 관련된 자의식적인 장소감(sense of place)을 의미한다.
 - 17) 시간예산(time-budget)이란 특정기간 동안 개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 분석하는 시간배분(time-allocation)에 관한 연구로 보통 1일에서 1주일에 걸친 단기간 동안 개인활동의 시간, 순서, 지속기간을 서술하게 된다. 이 연구는 19세기 도시생활과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1924년 소련의 국가경제계획의 일환으로써 모스크바 노동자들에 대해 실시된 것이 시초이나 그 후 방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의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침체되다가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자료처리 능력이 개발되면서 다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이창운, 1985, 25).
 - 18) Paasi는 동시대의 사람들 즉 한 세대(generation)는 단순히 지역의 역사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공간적·역사적 맥락에 영향을 끼쳐서 지역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세대란 한 지역의 역사와 제도적 실천을

- 통한 개개인들과의 사이에 매개역할을 한다.
- 19)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모두 성남시 내에 존재하는 행정구역상 區로 구분되지만 설문조사시에는 주민들이 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존시가지의 경우는 '성남'으로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분당'의 명칭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 20) 신시가지는 주택의 구성이 주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한 시기가 기존시가지에 비해 짧기 때문에 제반사항에 대한 관심과 새롭게 장소 만들기적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 21) L 주부와 면접에서 신시가지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였는데, 즉 "신시가지가 건설되면서 이 곳 기존시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한다. 나아진 것이라고는 도로가 다소 넓어진 것밖에 없다....."
 - 22) 신시가지에 사는 주부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들은 항상 분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습관은 서울에서 '강남' '강북'이라는 분리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 23) 기존시가지에 사는 한 학생이 했던 말, "신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으로 성남대로를 지나가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애들아 너희들 공부 못하면 저런 데서 살게 된단다." (김태현 편, 1998, 60)
 - 24)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부들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경까지의 시간대별 주요활동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비교·분석하였다.
 - 25) 지면상 평일의 경우만을 제시하였음.
 - 26) 주변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설문문항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존시가지(수정·중원구) 거주지 근접이 60.9%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친구이므로가 24.4%인데 반해서 신시가지(분당구) 지역은 거주지 근접에 55.2%, 자녀의 친구관계가 35.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7) 여기서 쇼핑이란 구매목적 이외에 window shopping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28)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이용, 미용실, 쇼핑, 구매활동이 모두 일어남.
 - 29) 면담조사로 확인함.

文獻

- 강정희, 1994, 중산층 주부의 여가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기도, 1999,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1997).
- 경기도, 2000, 주민등록 인구통계(1999).
- 김태현 편, 1998, 공간의 파괴와 생성: 성남과 분당 사이, 문화과학사, 서울.
- 김현미, 1997, "인간의 행위와 공간의 관계에 관하여: 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총, 37, 78-106.
- 김향원, 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숙자, 1991, "계급연구의 분석단위: 기혼여성의 계급적 지위,"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383-400, 다산출판사, 서울.
- 뵘에르 부르디외, 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下, 최종철 옮김, 새물결, 서울.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명보문화사.
- 앙리 르페브르, 1990, 현대 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도서출판 주류·일념, 서울.
- 에드워드 소자,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옮김, 시각과 언어, 서울.
- 이상일, 1995, "뵘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지리학: 문화와 소비의 사회지리학을 지향하며," 응용지리, 18, 57-91.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동: 지리학적 연구주체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이윤호, 1995, "신도시 아파트 거주가구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이화지리총서, 6, 213-244.
- 이재하, 1985, "대학생의 일상행태에 관한 시간지리학적 연구," 홍순완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399-420.
- 이창운, 1985, 도시활동유형에 관한 시·공간적 연구: 주부의 가외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진양고, 1998,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일과 시장 그리고 유곽,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 연구소.
- 통계청, 1990,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하재명, 1989, 물리적 환경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대구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uba, L. and Hummon, D. M., 1993, A place to call home: identificatin with dwelling, community and reg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34 (1), 111-131.
- Entrinkin, J. N., 1991, *The Betweenness of Place: Towards a Geography of Modernit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r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lan, London.
- , 1985, Time, Space and Regionalisation, in Gregory, D. and Urry, J.,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 Macmillan, London, 265-295.
-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4), 208-228.
- Goodchild, M. F. and Janelle, D. G., 1984, The city around the clock: Space-Time patterns of urban ecological structure, *Environment & Planning A*, 16, 807-820.
- Hägerstrand, T., 1970,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Papers &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4, 7-21.
- Harvey, D., 1990, Between Space and Time: Reflections of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0(3), 418-434.
- Johnston, R. J., Hauer J. and Hoekveld, G. A., 1990,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Knox, P. L., 1995, *Urban Social Geography*, 3rd eds.,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lated by Nicholson-Smith, D., Blackwell, Oxford.
- Merrifield, A., 1993, Place and space : a Lefebvrian reconcili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18, 516-531.
- Paasi, A., 1991, Deconstructing regions : notes on the scales of spatial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239-256 .
- Parkes, D. and Thrift, N. 1980, *Time, Spaces and Places*, John Wiley, Chichester.
- Parm, R. and Pred A., 1976, A time-geographic approach on problems of inequality for women, *Working paper*, 236,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n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Pred, A., 1985,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Enclosure, social change and the becoming of the places, in Skäne, Gregory, D. and Urry, J.,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 London, 337-365.
- , 1986, *Place, Practice and Structure: Social and Spatial Transformation in Southern Sweden: 1750-1850*, Poity Press, Cambridge.
- Seamon, D., 1979, *A Geography of the Lifeworld: Movement, Rest and Encounter*, New York.
- Simonsen, K., 1991,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contextuality of mode of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9, 417-431.
- Soja, E. W., 1981, Socio-spatial dialectic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 207-225.
- Thrift, N. J.,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1(1), 23-57.
- Warf, B., 1988, Locality studies, *Urban Geography*, 10(2), 178-185.